

|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동종펀드 연평균 수익률(재간접형)(%) | | | | 운용경력년수 |
|---|---|---|-----|--------|--------|-----------------------|-------|-------|-------|---------|
| | | | | 펀드수(개) | 규모(억)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운용전문 인력 | 김병걸 | 1976년 | 책임 | 48 | 27,071 | 17.26 | - | 17.83 | 32.83 | 12년 5개월 |
| | 주형준 | 1977년 | 책임 | 59 | 30,033 | 17.98 | 32.06 | | | 19년 1개월 |
| | 전연경 | 1994년 | 부책임 | 62 | 36,037 | 17.98 | - | | | 1년 7개월 |
| | 황정민 | 1998년 | 부책임 | 55 | 35,448 | 17.88 | 31.89 | | | 2년 4개월 |
| <p>(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 | | | | | |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p>·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p>·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 | | | |
| | 원본손실 위험 등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재간접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여 해당 투자신탁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입과 환매시에 적용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증권에서 실제로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특히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에 반영되는 시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부도 등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권리행사 요구 및 처리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피집합투자기구를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운용관련 규정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도 있습니다. | | | | | | | | |
| | 국가위험 및 정책변경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주식,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 | | | | | | | | |

| | | | |
|-----------|--|--|-----------------------------------|
| | | 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 | 자산배분 전략 수행에 따른 투자 위험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노후자금의 효율적인 인출 및 보존 등을 장기적인 투자목적으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들의 비중을 조절하여 투자하는 전략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 전략으로 인해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어 투자신탁 전체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일반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변동성 및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ETF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해당 상장 국가의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투자한 ETF 등의 계약은 해지되고 해당 잔여자산을 분배 받을 수 있고, 잔여 자산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 | 자금 송환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로부터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하이일드 채권 관련 투자위험 | 투기등급 채무증권은 ‘정크본드(junk bond)’라 하며, 투자적격 등급의 채무증권보다 원금 손실 위험이 더 크다고 여겨지며, 발행회사의 원금 지급 능력 면에서 상당히 투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증권입니다. 이러한 투기등급 채무증권은 경제조건 악화나 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수익률이 투자적격 등급 채무증권에 비해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낮은 등급의 증권은 일반적으로 경제상황 악화시기에는 높은 등급의 증권보다 더 높은 투자손실위험(시장, 신용, 유동성 위험 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
| | 환율변동 위험 및 환헤지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해당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헤지는 해당 통화관련 선물 및 선물환 등을 활용하여 헤지할 예정이나 헤지단위 수량의 문제, 통화선물, 선물환의 거래시간과 해외시장의 거래시간 불일치,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완전 헤지는 불가능하며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환위험 관리전략: 모두자신탁은 외화표시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 외화표시 자산의 표시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투자신탁의 최소 헤지비율은 모두자신탁의 투자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목표 헤지비율: 최소 50%~60%, 최대 100% 수준 | |
| 매입방법 | 17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 환매방법 | 17시 이전: 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5영업일에 대금 지급 |
| | 17시 경과 후: 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 | 17시 경과 후: 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6영업일에 대금 지급 |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기준가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 ·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 | 구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 계좌 · 클래스 · 펀드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 |
| 집합투자업자 | KB자산운용주식회사 ☎ 02-2167-82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kbam.co.kr) | | |
| 모집기간 | 2018년 02월 26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 모집 매출 총액 | 10조 좌 |
| 효력발생일 | 2026년 04월 30일 |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54~p.5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